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지연행동: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신 수 지

울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서 수 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지연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통제 척도, 문제해결능력 척도, 지연행동 척도를 실시하였고, 29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문제해결능력(문제해결 자신감, 접근-회피 양식, 개인적 통제감), 지연행동 간의 상관을 알아보고,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 방정식 검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와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지연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문제해결능력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이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고,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별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줄이고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해결 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감을 지각하기 위한 심리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 자신감, 접근-회피 양식, 개인적 통제감, 지연행동

* 본 연구는 신수지(2016)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지연행동: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수정 보완한 것이며, BK 21 플러스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F16HR31D1802).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서수균, 부산대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Tel : 051-510-2125, Fax : 051-581-1457, E-mail : sgseo@pusan.ac.kr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더욱 경쟁적이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 많아, 해야 할 것을 나중에 연기하는 것은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김정희, 2003).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취업난의 증가와 함께 요구되는 것이 증가하고 있어, 할 일을 미루는 행위가 학교생활이나 개인경력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대학생이 할 일을 마감 시간까지 미루거나 다 끝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은희, 박승호, 2007). 상담 장면에서 많은 대학생이 지연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였으며, 지연행동이 삶의 질을 낮추고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였다(Klingsieck, Fries, Horz & Hofer, 2012; Stead, Shanahan & Neufeld, 2010). Solomon과 Rothblum (1984)은 지연행동을 ‘주관적 불편감을 겪으면서도 할 일을 미루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지연행동을 인지·행동·정서적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와 우울, 불안, 자기비난, 대인관계의 문제 등을 보였다(김광숙, 김정희 2007; 김희정, 이영호 2015; 차미애, 2015).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목표설정 및 달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적, 학업적, 직업적 수행의 어려움(Lay & Schouwenburg, 1993; Tice & Baumeister, 1997; Tuckman, 1991), 높은 스트레스, 건강문제(Sirois, 2007; Tice & Baumeister, 1997), 금전적 피해(Steel, 2007) 등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연행동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연행동을 경험하고, 그 부정적 영향이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연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원인이 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됐는데, 크게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실패공포와 평가불안(Balkis & Duru, 2007; Solomon & Rothblum, 198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이수민, 양난미, 2011), 자기조절의 어려움(Rozental & Calbring, 2014), 부정적 자기개념(Tuckman, 1991; Van Eerde, 2003) 등이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helicopter parenting)(Hong, Hwang, Kuo, & Hsu, 2015), 부모 권위(황임숙, 장성숙 2010), 초기 부적응 도식(김보영, 김영근, 2016; 임성문, 2006), 부모의 심리적 통제(임성문, 박명희, 2010) 등이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연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연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외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각된 문제해결능력(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특히, 심리적 통제는 지연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보영, 김영근, 2016; 임성문, 박명희,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필요한 규제, 감독, 안내를 제공하는 행동적 통제와는 다른 개념이다(Smetana & Daddis, 2002).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나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양육방식을 말한다(Barber, 1996).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불안, 우울, 외로움, 혼란과 같은

내현화 문제뿐만 아니라 외현화 문제도 일으킨다(Barber, 1996;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황임숙과 장성숙(2010)은 부모의 강압적이고 판단적인 태도가 부모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의 시작과 종료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지연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고, 부모의 영향이 자녀의 성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문, 박명희, 2010; 임소연, 2013).

이와 같은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영향은 전 연령대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신다희, 2015). 이것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보다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초기 성인기까지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고 심리적·물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경험하는 것이다(신희수, 안명희, 2013).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지연행동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와 모에 따라 다르고 서로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와 모로부터 자녀가 각각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강정임, 2013; 서지은, 2012; 이해연, 200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모의 통제적 양육방식보다 부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행동지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은, 2012). 청소년의 경우, 모의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만 지연행동에 영

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해연, 2009)와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모두 지연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강정임, 2013)가 대비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부와 모 각각 영향력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고, 지연행동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된 문제해결능력은 행동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 맞닥뜨리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해준다(Heppner, Witty & Dixon,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민정(2012)의 연구에서 지각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과 지연행동 간에 높은 상관이 있고, 지각된 문제해결능력이 지연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문제해결능력은 실제적 문제해결기술이 아닌 문제해결에 대한 자기 신뢰를 의미한다(Heppner & Petersen, 1982). 즉,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부족할수록 지연행동을 더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임숙, 장성숙,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성문과 박명희(2010)의 연구에서 자기 결정성 부족이 지연행동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하였다. 자기 결정성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능력 지각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지각된 문제해결능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문제해결에 있어 적극적이지만, 지각된 문제해결능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해결에 있어 회피하는 모습을 흔히 보인다(Heppner, Hibel, Neal, Weinstein & Robinowitz 1982; Heppner & Petersen, 1982; Heppner, Reeder & Larson, 1983).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자신의 문제해결력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기 쉽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며, 결국 그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김수진, 2008).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자각하는지가 회피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각된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부모가 수용적이고 지지적일 때 자녀의 자기 가치감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란, 2004).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지연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이와 반대로 부모가 조건적으로 사랑과 인정을 제공할 때, 자녀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희정, 2012; Van Eerde, 2003).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건적이고 통제적일 때, 자녀가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유림과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해결력은 특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문제해결능력 지각과 개념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지각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한다(신다희, 2015). 통제적인 부모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간섭당하기 때문에 자기조절능력을 기르기 어렵다(Nucci, Killen & Smetana, 1996). 즉,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의 세 차원들(문제해결 자신감, 접근-회피 양식, 개인적 통제감)이 심리적·신체적 건강과 차별적인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자신감은 다른 요인에 비해 자살관념 및 무망감과 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Dixon, Heppner & Anderson, 1991). 접근-회피 양식의 경우 다른 두 요인과 달리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며(박경, 2004), 문제해결 자신감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었다(Heppner, Pretorius, Wei, Lee & Wang, 2002). 정서조절과 관련 있는 개인적 통제감은 다른 두 하위요인 보다 특성분노 및 신체적 건강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Carscaddon, Poston & Sachs, 198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문제해결능력 지각은 지연행동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 지각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문제해결능력을 구성하는 세 차원(문제해결 자신감, 접근-회피 양식, 개인적 통제감)이 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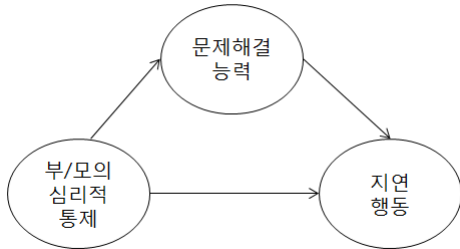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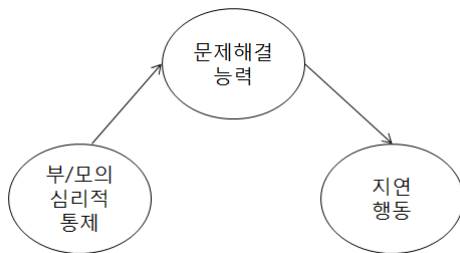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완전매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이희경, 2008),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연구모형(그림 1)과 함께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문제해결능력을 통하여 지연행동에 이르는 경로(그림 2)를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지연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연행동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본 연구 결과가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문제해결능력, 지연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문제해결 자신감, 접근-회피 양식, 개인적 통제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문제해결 자신감, 접근-회피 양식, 개인적 통제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경남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314명(인문 계열 42명, 사회 계열 104명, 교육 계열 15명, 공학 계열 19명, 경상 계열 37명, 자연 계열 62명, 예체능 계열 19명, 기타 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이 중 일변량 표준점수(z-score)가 이상값으로 나타난 10부와 외국인 학생이 응답한 5부를 제외하고 총 299명(남자: 128, 여자: 171)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심리학 관련 강의 수강생들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만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만 21.5세(SD: 2.28)였다. 1학년이 73명(24.4%), 2학년이 74명(24.7%), 3학년이 59명(19.7%), 4학년이 93명(31.1%)이었다.

측정 도구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

Barber(1996)가 개발하고 전숙영(2007)이 번안한 심리적 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본인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기표현 제한(문항 예: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감정불인정(문항 예: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신다.'), 비난(문항 예: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지난 잘못까지 들춰내시곤 한다.'), 죄책감 유발(문항 예: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면서 내게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애정철회(문항 예: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싸우고 나면 내가 아버지/어머니의 화를 풀어줄 때까지 나랑 말하지 않으신다.'), 불안정한 감정기복(문항 예: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랑 있을 때 감정의 변화가 심하시다.') 등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숙영(2007)이 모의 심리적 통제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모 .83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부 .91, 모 .90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 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PSI)

Heppner와 Peterson(1982)이 개발하고 임현우, 이동귀, 박현주(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보고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 자신감(Problem Solving Confidence: PSC), 접근-회피 양식(Approach-Avoidance Style: AAS), 개인적

통제감(Personal Control: PC) 등의 3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여과문항(filter items) 3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문제해결 자신감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문항 예: '처음에 뚜렷한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도, 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접근-회피 양식은 '문제해결 활동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가 혹은 회피하는가'를 의미한다(문항 예-역채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는 그 이유를 검토하지 않는다.'). 개인적 통제감은 '문제해결에 직면했을 때, 본인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문항 예-역채점: '나는 때로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및 양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 자신감,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 자신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통제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현우, 이동귀, 박현주(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문제해결 자신감 .82, 접근-회피 양식 .83, 개인적 통제감 .63, 전체척도 .89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문제해결 자신감이 .83, 접근-회피 양식이 .84, 개인적 통제감이 .64로 나타났다.

일반적 지연행동 척도(General Procrastination: GP)

Lay(1986)가 개발하고, 임성문(2006)이 번안한 일반적 지연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지연행동의 행동적 측면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연행동의 인지적 이유나 정서적 결과와 관련된 문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척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지연행동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연행동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단일 요인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그냥 앉아서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도, 며칠이 지나도록 좀처럼 그 일을 끝내지 못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의 시작을 미룬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임성문(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문제해결능력, 지연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단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Bandalos와 Finney(2001)의 제안에 따라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지연행동 변인에 대해 네 개의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변인별로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 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꾸러미들이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을 짝지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

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문제해결능력, 지연행동 간의 상관분석

부모의 심리적 통제, 문제해결능력,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각각은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부적상관을(부: $r=-.17$, $p<.01$, 모: $r=-.17$, $p<.01$), 지연행동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 $r=.18$, $p<.01$, 모: $r=.27$, $p<.01$). 이는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지각된 문제해결능력이 낮고, 지연행동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접근-회피양식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부: $r=-.11$, ns, 모: $r=-.05$, ns). 문제해결능력은 지연행동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는데($r=-.29$, $p<.01$), 이는 지각된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지연행동의 빈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32~1.38) ± 1.965 미만으로 .05 유의수준에서 정규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첨도(-.93~1.55) ± 10 미만으로 정규성에 문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N=299)

변인	1	1-1	1-2	1-3	1-4	1-5	1-6	2	2-1	2-2	2-3	2-4	2-5	2-6	3	3-1	3-2	3-3	4
1	-																		
1-1	.80**	-																	
1-2	.76**	.55**	-																
1-3	.87**	.61**	.58**	-															
1-4	.67**	.40**	.47**	.53**	-														
1-5	.78**	.55**	.39**	.64**	.42**	-													
1-6	.84**	.62**	.52**	.71**	.48**	.67**	-												
2	.38**	.24**	.26**	.32**	.50**	.39**	.30**	-											
2-1	.29**	.21**	.19**	.25**	.13**	.30**	.31**	.78**	-										
2-2	.40**	.27**	.31**	.29**	.32**	.38**	.32**	.77**	.49**	-									
2-3	.32**	.17**	.23**	.33**	.25**	.30**	.24**	.83**	.58**	.52**	-								
2-4	.32**	.19**	.22**	.24**	.37**	.30**	.20**	.66**	.36**	.57**	.45**	-							
2-5	.23**	.14**	.14**	.22**	.17**	.27**	.16**	.81**	.55**	.46**	.69**	.37**	-						
2-6	.19**	.11**	.09**	.14**	.16**	.25**	.17**	.80**	.60**	.49**	.61**	.39**	.70**	-					
3	.18**	.17**	.09**	.16**	.15**	.13**	.14**	.17**	.11**	.15**	.10**	.14**	.17**	.14**	-				
3-1	.14**	.10**	.08**	.14**	.16**	.10**	.11**	.18**	.07**	.15**	.15**	.16**	.17**	.15**	.78**	-			
3-2	.11**	.15**	.02**	.10**	.08**	.09**	.09**	.05**	.06**	.06**	.013**	.03**	.05**	.05**	.86**	.42**	-		
3-3	.20**	.17**	.21**	.15**	.14**	.13**	.15**	.28**	.20**	.24**	.18**	.22**	.25**	.22**	.69**	.48**	.42**	-	
4	.18**	.11**	.15**	.17**	.029**	.24**	.10**	.27**	.24**	.18**	.25**	.14**	.19**	.24**	.29**	.28**	.13**	.40**	-
M	34.74	7.43	7.68	5.36	4.27	6.09	3.91	35.66	7.32	7.44	5.71	5.26	5.90	4.01	132.98	47.49	67.16	18.33	57.36
SD	11.60	2.68	2.81	2.68	1.87	2.57	2.07	11.67	2.80	2.92	2.59	2.14	2.48	2.08	16.55	6.98	9.63	4.05	11.68
왜도	0.92	0.41	0.32	1.38	0.75	0.91	1.16	0.5	0.6	0.28	1.01	0.04	0.8	0.94	0.14	-0.32	-0.01	-0.06	0.0
첨도	0.65	-0.31	-0.48	1.55	0.02	0.34	0.72	-0.17	-0.07	-0.67	0.69	-0.93	0.18	-0.04	-0.34	-0.01	-0.29	-0.31	-0.15

주: 1. 무의 심리적 통제, 1-1: 자기표현 제한(부), 1-2: 감정불인정(부), 1-3: 비난(부), 1-4: 죄책감 유감(부), 1-5: 애정결핍(부), 1-6: 불안정한 감정기복(부), 2: 모의 심리적 통제, 2-1: 자기표현 제한(부), 2-2: 감정불인정(부), 2-3: 비난(부), 2-4: 죄책감 유감(부), 2-5: 애정결핍(부), 2-6: 불안정한 감정기복(부), 3: 문제해결 능력, 3-1: 문제해결 자신감, 3-2: 접근 회피 양식, 3-3: 개인적 통제감, 4: 지연행동
* p<.05, ** p<.01

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우종필, 2012).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부의 심리적 통제를 예언변인으로 한 모형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chi^2=136.140(df=61, p<.001, N=299)$, TLI=.94, CFI=.96, RMSEA=.064(90% 신뢰구간=.050-.079)로 양호하였다. 모든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부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들은 .595에서 .844, 문제해결능력은 .544에서 .779, 지연행동은 .754에서 .806의 요인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잠재변인들이 지표(측정변인)에 의해 잘 대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결과가 모의 심리적 통제를 예언변인으로 한 모형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chi^2=139.455(df=61, p<.001, N=299)$, TLI=.94, CFI=.95, RMSEA=.066(90% 신뢰구간=.051-.080). 모든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모의 심리적 통제의 경우 .498에서 .827, 문제해결능력은 .529에서 .798, 지연행동은 .754에서 .804의 요인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3개의 측정변수로 3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표 2. 잠재변인 간 상관(부) (N=299)

	1	2	3
1. 부의 심리적 통제	-		
2. 문제해결 능력	-.25**	-	
3. 지연행동	.21**	-.48***	-

** $p<.01$, *** $p<.001$

표 3. 잠재변인 간 상관(모) (N=299)

	1	2	3
1. 모의 심리적 통제	-		
2. 문제해결 능력	-.30***	-	
3. 지연행동	.31***	-.48***	-

*** $p<.001$

것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고 χ^2 값 차이검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은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이다. 대안모형은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이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의 경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36.150(df=61, p<.001, N=299)$, TLI=.94, CFI=.96, RMSEA=.064이고,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38.407(df=62, p<.001, N=299)$, TLI=.94, CFI=.96, RMSEA=.064로 만족할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의 심리적 통제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beta=.10, ns$)으로 나타나 완전매개모형인 대

표 4.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부	연구모형	136.150	61	.943	.956	.064(.050~.079)
	대안모형	138.407	62	.943	.955	.064(.050~.079)
모	연구모형	139.455	61	.940	.953	.066(.051~.080)
	대안모형	146.568	62	.936	.949	.068(.054~.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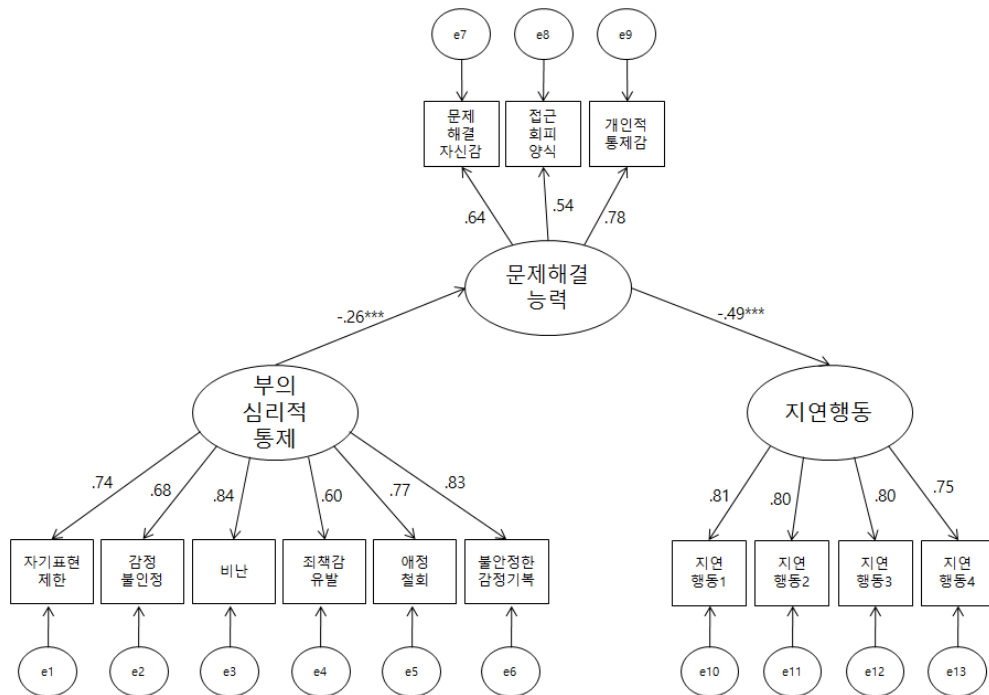


그림 3. 대안모형 검증결과(부)

안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모수추정치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모의 경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39.455(df=61, p<.001, N=299)$, TLI=.94, CFI=.95, RMSEA=.066이고,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46.568(df=62, p<.001,$

$N=299)$, TLI=.94, CFI=.95, RMSEA=.068로 만족할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X^2 값 차이검증을 통해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홍세희, 2000).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 3.84이상의 χ^2 값 차이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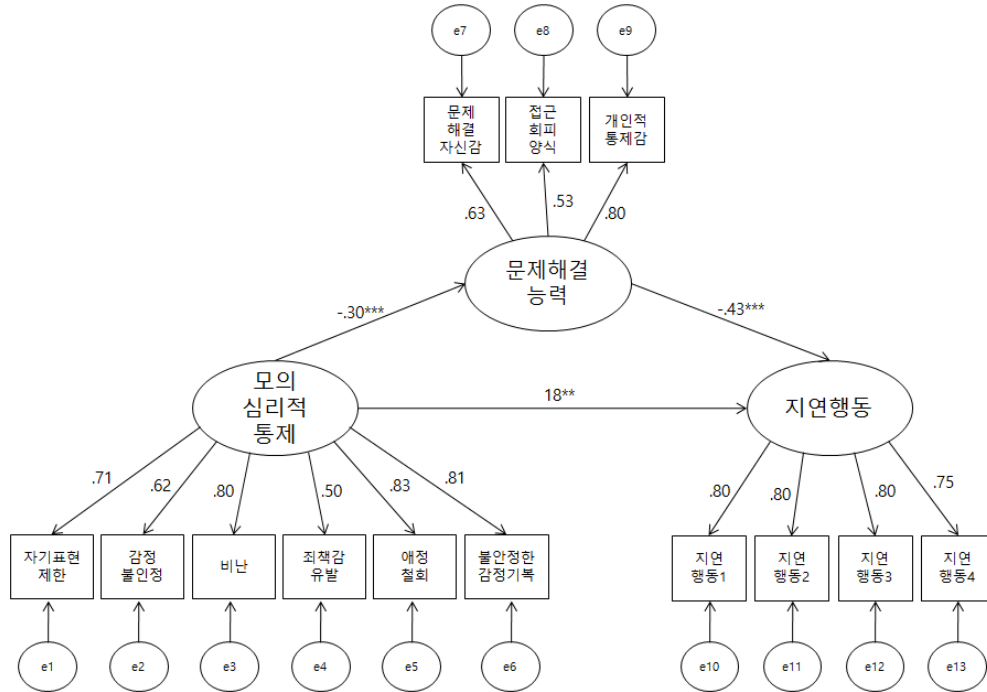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 검증결과(모)

야 한다(우종필, 2012). 검증결과, χ^2 값 차이는 7.113으로 그 값이 3.84보다 크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모수추정치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부와 모의 심리적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별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자신감은 부와 모 모두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각각 부: $\chi^2=88.926(df=60, p<.001, N=299)$, TLI=

.981, CFI=.986, RMSEA=.039, 모: $\chi^2=94.914(df=61, p<.001, N=299)$, TLI=.977, CFI=.982, RMSEA=.043으로 만족할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접근-회피 양식은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모두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부: $\beta=-.12, ns$, 모: $\beta=-.07, ns$)으로 나타났다. 즉, 접근-회피 양식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개인적 통제감은 부는 완전매개모형, 모는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각각 부: $\chi^2=88.926(df=60, p<.001, N=299)$, TLI=.981, CFI=.986, RMSEA=.039, 모: $\chi^2=94.914(df=61, p<.001, N=299)$, TLI=.977, CFI=.982, RMSEA=.043으로 만족할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 사이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99)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 및 직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최종 모형별로 실시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부의 심리적 통제는 문제해결능력을 통해서만 지연행동을 예측하였다. 둘째, 모의 심리적 통제는 지

연행동을 직접 예측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 사이에서 문제해결 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99)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 및 직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별로 실시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따라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표 5. 지연행동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N=299)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부	심리적 통제 → 문제해결능력	-.261***	-.261** (-.374~-.149)	-
	문제해결능력 → 지연행동	-.487**	-.487** (-.594~-.376)	-
	심리적 통제 → 지연행동	.127***	-	.127*** (.069~.203)
모	심리적 통제 → 문제해결능력	-.304**	-.304** (-.413~-.190)	-
	문제해결능력 → 지연행동	-.430***	-.430*** (-.564~-.323)	-
	심리적 통제 → 지연행동	.306**	.176* (.052~.298)	.131*** (.074~.20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지연행동에 대한 문제해결 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감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N=299)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부	심리적 통제 → 문제해결 자신감	-.168**	-.168** (-.270~-0.054)	-
	문제해결 자신감 → 지연행동	-.299**	-.299** (-.409~-0.189)	-
	심리적 통제 → 지연행동	.203**	-.153* (.045~-0.270)	.050*** (.018~-0.095)
	심리적 통제 → 개인적 통제감	-.279**	-.279** (-.397~-0.158)	-
	개인적 통제감 → 지연행동	-.487**	-.487** (-.603~-0.365)	-
	심리적 통제 → 지연행동	.136**	-	.136** (.070~-0.215)
모	심리적 통제 → 문제해결 자신감	-.206**	-.206** (-.319~-0.080)	-
	문제해결 자신감 → 지연행동	-.276**	-.276** (-.385~-0.166)	-
	심리적 통제 → 지연행동	.304**	.247** (.125~-0.367)	.057** (.020~-0.101)
	심리적 통제 → 개인적 통제감	-.367***	-.367*** (-.475~-0.255)	-
	개인적 통제감 → 지연행동	-.399***	-.399*** (-.561~-0.260)	-
	심리적 통제 → 지연행동	.305**	.159* (.029~-0.300)	.146*** (.083~-0.240)

* $p < .05$, ** $p < .01$, *** $p < .001$

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감이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문제해결 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감을 떨어뜨려 지연행동을 촉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 사이에서 문제해결능력 지각의 매개효과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문제해결능력 지각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지연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하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 자녀는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낮게 지각하고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문제 해결 상황에서 긍정적 대처가 어렵다는 선행연구(김유림, 강지현, 2014)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문제해결능력, 지연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강정임, 2013; 김민정, 2012; 이현정, 2012; 이혜연, 2009; 임성문, 박명희, 2010; 임소연, 2013)들과 일관된다.

둘째, 문제해결능력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하였다. 부의 심리적 통제의 경우, 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 지각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심리적 통제는 지연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의 심리적 통제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지연행동의 빈도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심리적 통제 보다 부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 간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모의 심리적 통제의 경우, 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심리적 통제는 지연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지각을 매개하여 지연행동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 Youniss(1980)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개입하는 영역이 다르고, 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기대하는 것

도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부와 모의 역할이 대체로 다르고, 사회문화적 기대가 다르므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와 다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가할 때 부모가 사용하는 심리적 통제 수단(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각각 다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자신감은 부와 모 모두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 문제해결 자신감이 부족하여 지연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각된 부의 심리적 통제 그 자체만으로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없지만, 강압적이고 판단적인 부모의 자녀는 자신의 능력이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일의 시작과 완성을 미루는 행동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주장(황임숙, 장성숙, 2010)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접근-회피 양식의 경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연행동과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함께 지연행동을 예측하였을 때 심리적 통제에서 접근-회피 양식으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문제해결 상황에서 접근적 태도를 보일지 회피적 태도를 보일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개인적 통제감은 부와

모 각각 완전매개 효과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부의 경우, 자녀가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 그 자체보다 그 자녀가 개인적 통제감이 부족하여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모의 경우, 자녀가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 그 자체만으로 자녀가 지연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적 통제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지연행동자의 경우, 부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지연행동자에 대한 개입처럼 개인적 통제감을 높이는 방법 뿐 아니라 지각된 모의 심리적 통제를 다뤄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고(Nucci et al. 1996), 지연행동자들이 자기통제가 부족하다는 주장(Milgram & Tenne, 2000)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자신감과 자기통제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과제 수행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고 지연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여기서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통제감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한다. 즉,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부족하면 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 일상에서 원치 않는 지연행동이 반복될 경우, 개인적·직업적·학업적 영역에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지연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루었다. 최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지만(이

혜연, 2009),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즉, 상담장면에서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다루지 않고도 지연행동을 줄일 수 있는 치료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기존에 대부분의 연구가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문제해결능력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로 분석을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와 모로 나누고,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지연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개입전략을 제공해준다. 부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먼저 완전매개 변인으로 나타난 문제해결능력 지각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성공 경험을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적 통제감 역시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모의 심리적 통제는 지연행동에 직접 영향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한 간접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으므로, 지연행동의 감소를 위해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개입과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지각한 심리적 통제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본인의 지연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

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담자가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신의 지연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연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행동의 변화를 만들고 변화된 행동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정다정, 권혜수,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자율성을 지속해서 침해당하고 그 결과 부모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많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본인 스스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연행동 문제가 대학까지 이어지는 경우, 학업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신입생·편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해결능력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는 지연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내담자들끼리 원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지연행동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지역별, 대학별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지각

된 문제해결능력, 지연행동을 동시에 측정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론에 한계가 있다. 각 변인 간의 더욱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종단적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가 사용하는 심리적 통제수단이 다를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부와 모가 심리적 통제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접근·회피 양식 간에 상관관계와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원인과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이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접근 양식과 회피 양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아니면 본 연구자의 가설대로 통제로 인해 자녀들이 회피양식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임 (2013).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숙, 김정희 (2007). 꾸물거림과 성격의 5요인,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33-947.
- 김민정 (2012).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제해결능력 지각과 시간적 거리지각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김영근 (2016). 초기부적응도식이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6(3), 403-422.
- 김수진 (2008). 반추적, 반성적, 주의전환적 반응양식에 따른 문제해결력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림, 강지현 (2014).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4), 1-24.
- 김정희 (2003). 습관적 지연 극복을 위한 집단 훈련의 효과 검증: 대학생의 학업과 관련 하여. *상담학연구*, 4(4), 685-698.
- 김희정, 이영호 (2015). 능동-수동 지연행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2(2), 71-93.
- 박 경 (2004).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문제해결과 완벽주의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65-283.
- 서은희, 박승호 (2007). 지연행동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교육학연구*, 45(2), 105-119.
- 서지은 (2012).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행동 지연의 관계: 분노억제와 우울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다희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통제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안희정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 수치심 및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출판사.
- 이미란 (2004). 부모-자녀 및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존감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학업지연행동의 기질적, 환경적, 동기적 선행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0(3), 635-669.
-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이현정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 결정성과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연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2008). 낙관성/비관성, 문제해결평가 및 정적/부적 감정 간의 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03-623.
- 임성문 (2006). 초기 부적응 도식과 만성적 지연 행동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경로모형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성문, 박명희 (2010). 위험회피 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2), 127-146.
- 임소연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현우, 이동귀, 박현주 (2004). 한국판 문제해

- 결질문지. Dr. Heppner 초청 특별 심포지움: 상담에서의 문제해결. 12월 18일. 서울: 서강대학교. 미간행.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정다정, 권혜수 (2017).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극복을 위한 웹 기반 인지행동 프로그램 효과. *인간이해*, 38(2), 13-31.
- 차미애 (2015). 성격특성 및 완벽주의가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임숙, 장성숙 (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지연행동: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를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lkis, M., & Duru, E. (2007). The evaluation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aspects of the procrastination in the framework of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guidance.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7(1), 376-385.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69-296).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Carscaddon, D. M., Poston, J., & Sachs, E. (1988). Problem-solving appraisal as it relates to state-trait personality factors. *A Journal of Human Behavior*, 25(3-4), 73-76.
- Dixon, W. A., Heppner, P. P., & Anderson, W. P. (1991). Problem-solving appraisal,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51-56.
- Heppner, P. P., Hibel, J., Neal, G. W., Weinstein, C. L., & Rabinowitz, F. E. (1982). Personal problem solving: A descriptive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6), 580-590.
- Hep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1), 66-75.
- Heppner, P. P., Pretorius, T. B., Wei, M., Lee, D. G., & Wang, Y. W. (2002). Examining the generalizability of problem-solving appraisal in Black South Af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84-498.
- Heppner, P. P., Reeder, B. L., & Larson, L. M. (1983). Cognitive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sonal problem-solving apprais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4), 537-545.
- Heppner, P. P., Witty, T. E., & Dixon, W. A. (2004).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human adjustment: A review of 20 years of research using the problem solving invento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3), 344-428.

- Hong, J. C., Hwang, M. Y., Kuo, Y. C., & Hsu, W. Y. (2015). Parental monitoring and helicopter parenting relevant to vocational student's procrastin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39-146.
- Klingsieck, K. B., Fries, S., Horz, C., & Hofer, M. (2012). Procrastination in a distance university setting. *Distance Education, 33*(3), 295-310.
-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4), 474-495.
- Lay, C. H., & Schouwenburg, H. C. (1993). Trait procrastination, time management, and academic behavior.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8*(4), 647-662.
- Milgram, N., & Tenne, R.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decisional task avoidant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2), 141-156.
- Nucci, L. P., Killen, M., & Smetana, J. G. (1996). Autonomy and the personal: Negotiation and social reciprocity in adult child social exchang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73*, 7-24.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Rozental, A., & Calbring, P. (2014). Understanding and treating procrastination: A review of a common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y, 5*(13), 1488-1502.
- Sirois, F. M. (2007). "I'll look after my health, later":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procrastination-health model with community-dwelli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15-26.
-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2), 563-580.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tead, R., Shanahan, M. J., & Neufeld, R. W. (2010). "I'll go to therapy, eventually": Procrastination, stress and ment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3), 175-180.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 Tice, D. M., & Baumeister, R. F. (1997). Longitudinal study of procrastination, performance, stress, and health: The costs and benefits of dawdling. *Psychological Science, 8*(6), 454-458.
- Tuckman, B. W. (1991). The developmen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procrastinat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1*(2), 473-480.
- Van Eerde, W.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6), 1401-1418.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8. 01.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2. 10

게 재 결 정 일 : 2018. 06. 15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solving Ability 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ocra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Su-Ji Shin

Student Counseling Center,
University of Ulsan

Su-Gyun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problem-solv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ocra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Data from 299 participants were analyzed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tilized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which was further verified via the Bollen-Stine bootstrap procedure. Results as follows: Firs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negatively correlated with problem solving abilit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crastination. Second, problem solving abil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ocrastination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ocrastination. Third, problem-solving confidence(PSC) and personal control(PC) significantly mediated a por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ocrastination, but no mediation effect was found for approach-avoidance style(AAS). Thes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 to improv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rceived problem-solving ability that influences procrastina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m-solving confidence, approach-avoidance style, personal control, procrastination*